

# 태풍 '카눈' 남해안 상륙... 광주·전남 '초비상'

초속 33~43m 강풍·최대 300mm 비... 한반도 '관통'  
초등 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중단 ... 등교 시간 조정

광주·전남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는 카눈이 10일 오전 9시 경남 통영 인근 남해안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9일 예보했다.

한반도 상륙시 카눈의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중심최대풍속은 35%로 태풍 강도 '강'(중심최대풍속 33% 이상 44%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속 25km의 속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눈의 강풍반경은 320km 광주·전남 전 지역이 직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10일 새벽과 오전 광주·전남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10일 밤까지 100~200mm의 비가 내리겠고, 태풍 반경에 가까운 곳에서는 최대 300mm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문제는 강풍이다.

예상 경로를 보면 10일 오후 3시에는 청주 남남 동쪽 약 60km 부근 육상을 지날 전망이다. 이때 태풍의 강도는 '중'으로, 강풍 반경은 300km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9일 오후 5시를 기해 전남 10개 시·군(고흥, 여수, 완도, 보성,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진도)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고, 10일 새벽 광주·전남 전역으로 태풍주의보를 확대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과 유사한 경로를 지닌 태풍으로, 11년전 태풍 '산바'를 꼽았다. 산바는 한반도 상륙 당시 카눈과 같은 강도 '강'의 위력으로 남해안부터 경상, 강원을 초토화시켰다.

이에 광주와 전남도교육청도 대비에 나섰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운영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태풍이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운영 중단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광주는 10일 기준 초·중·고교 127개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며 10개교는 돌봄교실을 미운영한다. 다만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101개교가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또 이날 개학을 한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4개교는 10일 하루 휴업하며 유치원 3개교, 고교 4개교는 등교시간을 조정했다. 유치원 1개원, 고교 1개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지역은 현재 425개교, 1만1632명의 학생이 초·중·고교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 중단, 등교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다. 또 이날 개학한 총 9개교의 등교시간도



일부 조정됐다.

각 학교들은 태풍 영향에 따라 등교 중지가 결정될 경우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즉각 알릴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10일 새벽부터 예상돼 이날 오후 늦게 각 학교가 등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각 학교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용산 대통령실 지하 병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으로부터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9일 오전부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대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북구 운암 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가능한 인력과 자원 등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한 사전 대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영암 서호면 성재마을을 찾아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마을 주변 대비 태세를 살폈다. 김 지사는 마을 주변 축대 옹벽, 침수 취약지를 우송의 영암군수 등 관계자와 함께 점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산수동 인근 지하철2호선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 자재들을 줄로 고정시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휘발유 10개월 만에 1700원 돌파

주유소, 광주 최대 1779원·전남 평균 1680.89원

국제 유가 상승세에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0개월여 만에 1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광주에서도 1700원을 넘어서는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6.33원 오른 1702.5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27일(1705.43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지난해 6월 21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서서히 내림세를 보였다. 올 6월 15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다.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45원 오른 1ℓ당 1669.63원을 기록, 아직 평균

1700원을 돌파하지는 않았다.

다만 광주 주유소 9곳에서는 이미 휘발유를 1ℓ당 1700원을 넘겼고, 비싼 곳은 최대 1779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1680.89원으로 전날보다 6.82원 올랐다.

한편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 7일

신혼부부 올리는 웨딩 업체 횡포 ▶6면

임의진 광주 순례기 - 축구장과 뽕을~ ▶11면

신 팔도명물 - 장성사과 ▶22면

약 3개월 만에 1ℓ당 1500원을 뛰어넘었다. 이날 국내 경유 가격은 1539.44원으로 전날보다 11.96원 올랐다. 현재 광주는 전남에 비해 12.14원 오른 1498.56원으로 15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뒀고, 전남은 이미 13.71원 오른 1507.14원으로 이미 1500원대를 돌파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다.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 도래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감산 등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JEONNAM JEONNAMDO 2022-2023

신안 퍼들교

장성 백양사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너도, 나도, 남도

blog YouTube Facebook Instagram

남도여행길잡이

검색

전라남도